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년 3월 17일(목) 배포시
배포일시	2022년 3월 17일(목) 10: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김필주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허브팀장 (044-550-4665, kimpjoo@kdi.re.kr) 서현원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허브팀 전문위원 (044-550-4636, shwon@kdi.re.kr)

#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기까지” KDI, 대외원조 역사 시계열서비스 제공

-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수원 역사가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대외원조 수원 관련 자료 및 통계를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경제e정보, <https://epts.kdi.re.kr>)를 통해 제공
  -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해외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대외원조는 빈곤 퇴치, 경제안정, 산업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 이 같은 수원 경험은 후발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사례로 인식돼 왔으나 관련 자료가 국내외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활용이 어려운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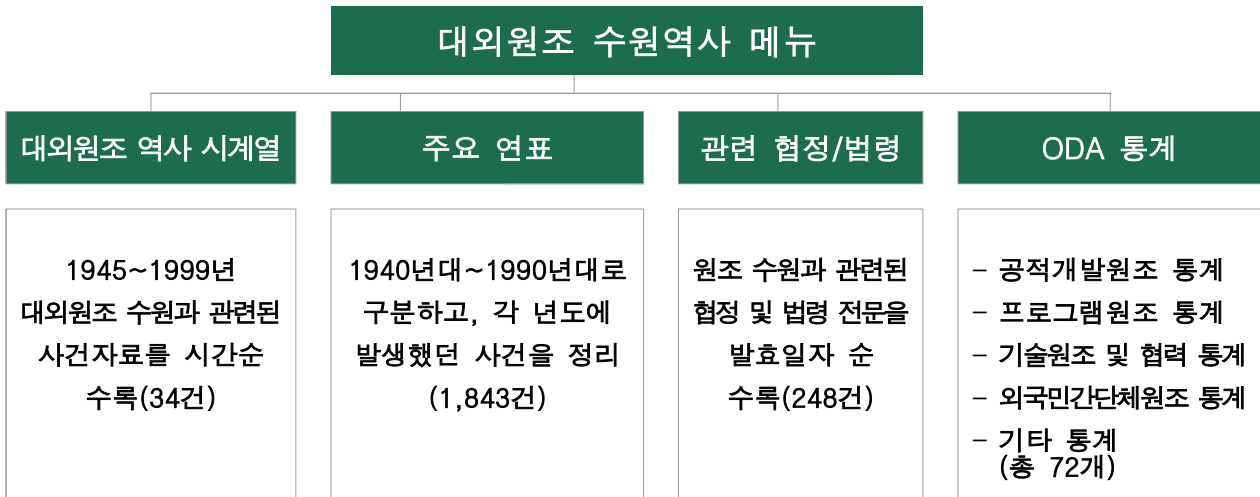
- KDI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수원 통계 및 관련 자료를 발굴, 취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경제e정보'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의 '대외원조 역사'를 클릭하면 '대외원조 역사 시계열', 'ODA 통계', '관련 협정 및 법령', '주요 연표' 등을 확인
- '대외원조 역사 시계열'은 약 55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을 선정, 연도별로 정리하고 관련 통계와 협정 등을 DB로 구축
-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홈페이지에 대외원조 수원정보를 집대성함으로써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대외원조 흐름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첨부. 대외원조 역사 시계열서비스 메뉴 및 이미지**

## ❖ 첨부1. 한눈에 보는 대외원조 수원역사



## ❖ 첨부2. 대외원조 수원역사 메뉴 구성



### ❖ 첨부3. 대외원조 역사 시계열서비스 화면

**대외원조역사 시계열 (34 건)**

과거순 연도 다운로드

- 1945
  - 89 미군정과 GARIOA(점령지역 행정기구 계획) 원조
- 1948
  - 12.16 한미원조협정 체결
  - 12.16 주한경제협력조처(ECA) 원조
- 1949
  - 11 주한경제협력조처(ECA) 설립
- 1950
  - 6.25 한국전쟁

**미군정과 GARIOA(점령지역 행정기구 계획) 원조**  
1945년 8월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군이 점령하거나 해방한 지역 국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육군부 예산으로 의료와 식량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구호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도 미국이 점령한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계속되었는데 이를 GARIOA(점령지역 행정기구 계획;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이하 GARIOA)이라고 한다.

한국에 대한 GARIOA 원조는 1943년 1월 1일자 카이로 선언서와 1945년 7월 26일자 포츠담 선언문에 따라 한국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in due course) 독립시키기 위해 남한에 수립된 미군정(USMAGIK: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에 제공되어 남한의 경제질서 회복과 민생 안정시키기 위한 구호에 이용되었다.

이후 GARIOA 원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12월 10일 체결된 (한미원조협정) 발효되기 전까지 제공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한미 양국은 1948년 8월 16일부터 총 8회에 걸쳐 행정권 이양을 위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리고 1948년 9월 11일 그동안 미군정에서 관할하던 출자, 현금, 인사 및 정부 직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1948년 12월 14일 경제부흥을 위한 (한미경제원조 협정)이 발효되었다.

1945년 9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미군정에 제공된 GARIOA 원조 총액은 약 4억 939만 달러 규모이다. GARIOA 원조는 주로 식량과 피복 면류 등 기초 생활용품과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철도, 도로공사 등 수송난을 해소하기 위한 물자도입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비료 도입 등 농업 증산 이외에도 광공업이나 면직물 공업, 수산업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도 원조액이 할당되었다.<sup>1)</sup> 또한, 콜레라, 말라리아 등 전염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료품 도입<sup>2)</sup>과 작은 금액이지만 교육 부문에도 원조자금이 배정되었다.

GARIOA를 통한 원조수인 상품 구성(1945~1948)

### ❖ 첨부4. 대외원조 역사 ODA 통계 화면

**ODA 통계**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원조 기술원조 및 협력 외국인간단체원조 기타

**자금융형별 ODA 현황(1945~1999년)** 자세히 보기 >

(단위: 백만 US 달러)

45% 유상(차관) 55% 무상(증여, Grants)

**다자통한 국가별 협력 현황(1973~1999년)** 자세히 보기 >

(단위: 백만 US 달러)

국가	ODA액 (백만 US 달러)
미국	124.8
캐나다	53.2
영국	29.3
일본	27.9
네덜란드	24.7
스웨덴	22.5
독일	22.1
프랑스	18.5
노르웨이	15.6
덴마크	13.4
기타국	44.2

[자료] 1945~59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연도, 1960~99년은 OECD DAC 통계시스템(<https://stats.oecd.org/>)  
[주] 1) 1947년 ODA차관은 해외청산위원회 (Office of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 OFLC)

[자료] OECD DAC 통계시스템(<https://stats.oecd.org/>)  
[주] 1) 기타 무명의 협력 통계 불합치